

최종보고서

「2025 국제관함식」  
정책성 등급조사 연구용역

2024. 10.



# 제 출 문

국방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25 국제관함식」 정책성 등급조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0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시욱



요약



# 요 약

## I. 정책성 등급 조사의 개요

□ 주관기관인 국방부가 제출한 『2025 국제관함식 계획서』(이하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 국제관함식」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간: 2025년 5월26일~6월1일(총 7일간)
- 장소: 부산 일원(부산 작전기지, 벅스코 등)
- 주관: 해군본부
- 주무부처: 국방부
- 참가 규모: 함정 70여척 (국내 40, 국외 30), 항공기 20여대, 60개국 외국군 대표단 및 인사 1만, 국내 7만 명
- 주제: “자유롭고 안전한 바다, 평화를 위한 동행(A Free and Safe Sea, Companionship for Peace)”
- 소요예산: 50.47억 원(전액 국비)
- 주요 행사: 해상 사열,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DEX), 국제해양력심포지엄(ISS), 문화행사(외국함 함상리셉션, 함정공개행사, 호국음악회, 관함식 기념 한류 콘서트 등)

□ 개최 목적

- 광복 80주년 및 해군창설 80주년을 국민과 함께 경축하는 축제의 장 마련
- 강한 해군력 현시 통해 군사도발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의지 표명

- 국방혁신 4.0과 연계한 첨단 과학기술기반의 해양무기체계 전시로 방위사업 육성 및 정부의 방산수출 확대 지원
- 국제 해양안보 협력 범위 확대 및 강화

□ 기대효과

- 신 해양강국의 입지 공고화와 외교 지평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 정부의 방산 수출 4대 강국 달성에 혁신적으로 기여
- 가치 공유국 해군과 군사 교류 및 상호협력 강화
- 범국민적 행사 추진으로 우호적 해외여론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2025 국제관함식」의 주요 프로그램

- 해상사열, 국제 해양력 심포지엄, 국제해양방위산업전, 해상사열/훈련시범, 국제 교류 협력 행사
- 산업시찰 및 문화탐방, 세계 군악 연주회

요약 표1. 주요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해상사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해군력 현시</li> <li>• 참가함정 : 국내함정 40여척, 외국함정 30여척</li> <li>• 참관 대상 : 초청단체/인사(1,500명), 국민사열단(1,000명), 각군 대표 등</li> </ul>
국제해양 방위산업전 (MADE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해양 무기체계 및 연구 기술 관련 전시로 정부의 방산 수출 확대 지원</li> <li>• 해양 무인 체계 시연,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전시, 한국형 구축함 /호위함/잠수함 및 관련 무기체계 전시 등</li> </ul>
국제해양력 심포지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복 80주년 및 해군창설 80주년 기념 국가 해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부각</li> <li>• 국제정치 및 해양 안보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표·토론 진행</li> <li>* 정부 인태전략 및 해군 인태전략 이행계획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li> </ul>
국제교류 협력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관함식, 국제해양방위산업전, 국제 해양력 심포지엄 참가대표단을 대상으로 각종 교류 협력 행사 추진</li> <li>• 양자 대담, 문화 교류 행사, 입항 환영 행사, 함정공개행사 등</li> </ul>



요약 표2. 주요 일정

구 분	내 용
5.26.(월)	• 해상사열(1차 / 국민사열단 참가), 관함식 환영만찬
5.27.(화)	• 해상사열(2차 / 국민사열단 참가), 국제 해양력 심포지엄, 호국음악회
5.28.(수)	• 국제해양방위산업전 개막식, 해양무인체계 시연
5.29.(목)	• 해상사열(본 행사 / 국민사열단 참가), 관함식 기념 콘서트
5.30.(금)	• 함정 기술·무기체계 세미나, 외국함 함상 리셉션
5.31.(토)	• 산업시찰, 문화탐방, 관함식 환송 만찬, 불꽃축제
6. 1.(일)	• 외국 대표 및 외국함 환송

□ 본 정책성 등급 조사는 국방부가 2025년 5월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2025 국제관함식」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 결과(점수)를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본 보고서는 기획재정부훈령에 의해 마련된 「국제행사관리지침」의 정책성 등급 조사 기준을 적용하여 국제행사의 정책성 평가를 수행하였음.

-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따르면 정책성 등급 평가는 행사개최의 공익성(30점), 행사개최 계획의 우수성(30점),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20점),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20점)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평가

- 「국제행사관리지침」은 상기 4가지 평가기준을 더 구체화하여 총 17개의 세부 평가 기준을 제시함.

○ 지침의 17개 정책성 기준 항목에서 서로 다른 질문이 결합된 항목이 있음을 고려하여 총 21개 항목에 대해 평가함.

## II. 행사의 성격 및 유사 행사 파악

### 1. 「2025 국제관함식」의 성격과 특징

- 「2025 국제관함식」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의 국제행사 정의에 따라 국제행사로 분류될 수 있음.
  - 「2025 국제관함식」은 여 60개국에서 외국인 1만 명, 내국인 7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규정의 국제행사 정의(제3조, 1호 가목과 라목)에 부합
- 관함식은 국가 통치권자가 군함의 전투태세와 장병들의 군기(군대 기강)를 점검하는 해상 사열의식에서 출발했지만, 세계 해군의 화합의 장으로 기능
  - 1341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가 함대의 전투태세를 검열한 것이 출발점이고, 1897년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년 경축의식이 관함식의 기원임.<sup>1)</sup>
- 무역국가인 대한민국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지역 해양안보 상황의 변화에 대한 냉철한 모니터링과 함께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관함식은 이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
  -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과 패권 경쟁을 지속하고 있음.
  - 강한 해군력은 개방·통상 국가의 국력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은 해양을 통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입지임.
- 관함식은 국가의 중요한 행사나 특별히 기념하거나 경축할 일이 있을 때 개최되는 범국가적인 행사
  -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해군 원로, 외국 무관, 참전용사 등 군 관련 인사들의 참여와 함께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관하며 우리 국방력의 위용에 자랑스러워하며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행사로 한국의 경우

1) 중앙일보, [용어해설] 관함식이란?, 1998.9.10

10년 주기로 개최되는 경향이 있음.

- 1998년 건군 50주년, 이순신 순국 400주년, 한국형구축함(광개토대왕함) 확보를 축하하기 위해 진해에서 국제관함식이 개최되었고, 좌승함인 광개토대왕함에 대통령이 승함하여 사열을 받음.
- 2008년에는 건군 60주년과 이지스함 확보를 기념하여 부산에서 국제관함식을 개최
- 2018년에는 건군7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관함식이 제주에서 개최되었고 일출봉함이 좌승함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이 일출봉함에 승함하여 사열을 받음.

□ 국제관함식과 같은 국방전시행사는 국방력을 과시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국방 자산들의 현시(presence)를 수단으로 활<sup>2)</sup>

- 특히 군사훈련을 통한 국방력의 현시는 일반국민들이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반면, 국방전시행사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은 공개된 국방 자산들 대부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일부 국민들은 직접 참여할 수도 있음.
  - 최근의 국방전시행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지향함에 따라 행사 준비과정부터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강조
  - 국방력은 관함식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와 주권을 보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됨.

## 2. 동종 또는 유사 행사 분석

□ 국제관함식은 해군본부가 주관하고 군 통수권자가 사열하는 행사로서 민간에서 개최할 수 없는 행사로 유사하거나 동종의 행사는 해외 사례만 찾아볼 수 있음.

---

2) 최정환, 조윤철, 신승민, 정성민, 2020, 국방전시행사의 경제적 과급효과 분석: 2018 제주국제관함식을 중심으로,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46권 2호. pp. 30-40

- 대부분의 국제관함식 행사는 국가 통치권자가 군함의 전투태세와 장병들의 군기(군대 기강)를 점검하는 해상사열에서 출발
- 현재는 세계 해군의 화합의 장이자 국민과 함께하는 해군 행사로 차별성이 있음.

### Ⅲ. 정책성 분석

#### 가. 행사 개최의 공익성

##### ① 국익과 공익 기여

- 「2025 국제관함식」은 글로벌 안보위협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우방·동맹국과의 긴밀한 연대 및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기회**
  - 본 행사를 통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해군력 건설을 위한 「필승해군 4.0」 구현 및 「국방혁신 4.0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을 국민에게 홍보할 기회이자, 세계 5위의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용을 과시하는 자리
  - 정부 인태전략의 이행과 힘에 의한 평화를 바다에서 뒷받침하는 신해양 강국의 입지 공고화, 외교 지평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 \* 국정과제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지원
- 최첨단 함정 무기체계·조선기술·기타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소개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 확대 및 ‘Made in Korea’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
  - 해양방산 수출 증진을 위한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DEX) 개최를 통해 **한국 방산 홍보에 기여**
- 한편 남북 간의 긴장이 장기화된 가운데 한반도 평화공존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동북아의 지역안보에 기여**
  - 미·일·중·러 등 역내 해군 지휘관이 참여하는 ‘평화컨퍼런스’ 개최 추진

#### 〈관련 설문조사 결과〉

- 행사목적의 국익·공익적 기여: 4개 행사목적에 대해 62.5~63.5% 긍정 답변
- 긍정적 효과의 범위: 국제적 37.2%, 전국 14.7%, 부산·울산·경남 26.1%,

- 본 행사의 개최는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도움이 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강화**에 기여
  - 정부는 2022년 12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고, 이어서 국방부는 `23년 12월 인태전략의 3대 비전 (자유, 평화, 번영) 실현을 위해 「국방분야 이행계획」에 이를 반영
    - \*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활동공간을 넓히기 위해 2022년에 발표한 경제와 안보를 포괄하는 전략
  - 해군은 「국방분야 이행계획」에 연계하여 `23년 12월 총39개 과제를 「인태전략 해군 추진계획」에 포함
-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 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라는 국정과제 106번의 추진에도 기여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이 다수
  -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59.9%
  - 국격에 부합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57.5%
  -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61.6%

- 전국민 설문조사 결과, 본 행사의 개최 목표인 ▲해군력 과시, 군사도발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의지 표명 ▲해양 방위산업 수출 증진에 기여 ▲국제 해양 안보 협력 범위의 확대 및 강화 ▲광복 80주년 및 해군 창설 80주년을 국민과 함께 경축하는 축제의 장 마련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주요 목표별 기여도(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 : ▲해군력 과시, 군사 도발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의지 표명 62.5% ▲해양 방위산업 수출 증진에 기여 64.5% ▲국제 해양 안보 협력 범위의 확대 및 강화 62.9% ▲광복 해군 창설 80주년을 국민과 함께 경축하는 축제의 장 마련 63.3%

- 설문 응답자들은 「2025 국제관함식」의 기대효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정책을 알리고, 힘에 의한 평화를 바다에서 뒷받침하는

해양강국의 입지 공고화를 꾀함.

#### 〈관련 설문조사 결과〉

- 기대효과와 우선순위(가장 중요한 기대효과부터 낮은 순으로) :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정책을 알리고, 힘에 의한 평화를 바다에서 뒷받침하는 해양강국의 입지 공고화(36.9%) ▲정부의 대외정책과 연계하여 국제적 군사교류 및 상호협력 확대(26.6%) ▲정부의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지원을 위한 해양방산 수출 확대에 혁신적으로 기여(22.8%) ▲범국민적 행사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13.7%)

### ② 개최목적 달성 가능성

- 「2025 국제관함식」의 프로그램은 해상사열, 국제해양 방위산업전, 국제 해양력 심포지엄, 국제교류 협력 행사, 함정공개행사, 불꽃축제·호국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포함하여 **한국의 해군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을 구축**하여 개최목적 달성에 기여할 전망
  - 강한 해군력 현시를 위한 해상사열 훈련 시범과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방산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국제해양 방위산업전이 국민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는 점은 개최목적 달성 가능성을 시사함.
- KIEP가 실시한 전국민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은 동 행사의 프로그램이 개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대체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
  - \* 불꽃축제, 호국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은 국제관함식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낮은 긍정적 평가를 얻었는데, 이는 행사 목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으로 이해됨.

#### 〈관련 설문조사 결과〉

- 프로그램별 행사 개최목적 달성 가능성에 대한 전국민 인식(긍정 답변 비율)
  - 해상사열 58.6%, 국제해양방위산업전 65.2%, 국제 해양력 심포지엄 59.7%, 국제교류 협력 행사 63.6%, 함정공개행사 61.1%, 불꽃축제, 호국음악회 등 문화행사 50.2%

### ③ 주무부처 정책과의 연계성

- 「2025 국제관함식」의 개최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분야 이행계획(23.12월)」과 「인태전략 해군 추진계획(23.12월)」을 통해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지원

- 국방부의 「2024년 국방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한 가운데,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할 계획을 갖고 있는 바, 이는 「2025 국제관함식」의 개최 취지와 일치됨.
- 「2025 국제관함식」은 ▲선진 국방역량 강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에 중점을 두고 국방의 모든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 ‘선진 국방역량 강화’는 첨단과학기술 역량이 접목된 싸워 이기는 정예 선진 군대로 변혁하는 것을 의미
- \*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은 동맹·가치공유국과의 글로벌 안보 연대를 강화하여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압도적 억제력과 방위역량을 구비를 의미
- \*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은 축적된 첨단기술력을 기반으로 방산수출·협력을 확대하여 범세계적으로 우리 무기·탄약을 생산 및 저장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을 구축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함께 견인

#### ④ 주관기관 중장기정책과의 연계성

- 해군은 「국방개혁2.0 해군추진계획」을 통해 「해군비전2045, 해양강국·대양해군」을 건설하기 위해 설계도를 제시했는데, 「2025 국제관함식」은 해양강국과 대양해군의 국제적 이미지 창출에 기여
- ‘해양강국·대양해군’은 ‘해군비전2045’가 구현된 미래 해군의 모습으로 이번 관함식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의 위용을 과시할 전망이다.
- \* ‘해양강국’에는 대한민국이 해양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주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대양해군’에는 국가이익이 존재한다면 근해뿐 아니라 대양까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해군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포
-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해군력 건설을 위한 「필승해군 4.0」 구현에 걸맞게 해군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MADEX에서 첨단해군 물품을 전시할 예정
- \*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해군(SMART NAVY: Strong Maritime forces Accomplished with Revolutionary Technology)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 중임.



## 나. 행사 계획의 우수성

### ① 행사계획 실현 가능성

- 「2025 국제관함식」은 역대 5회째 개최되는 해군의 국제행사로서 세계 해군의 화합의 장으로서 기능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
  - 행사 주제로 제시된 '자유롭고 안전한 바다, 평화를 위한 동행'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를 전문가로부터 받음.
  - \* 전 세계 해군이 한반도에 집결하여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해양에서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달성을 위한 강한 해군력 현시를 의미
  - 본 행사는 역대 관함식과 동일하게 해상사열, 국제 해양력 심포지엄, 방산 전시회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미 4회를 개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큼.
  - 다만 2018년 제주 관함식의 경우, 지역주민의 반발과 일본 자위함기(육일기)에 대한 이슈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행사 준비·시행 간 국방부 및 외교부, 부산시와 소통을 강화할 필요

### ② 개최시점 적절성/필요성/중복성

- 2025년은 광복 80주년,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와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적절한 시점임.
- 해군은 1998년, 2008년, 2015년, 2018년 국제관함식의 개최 경험을 보유

#### 〈관련 설문조사 결과〉

- 국제관함식 개최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전국민 답변(긍정 답변 비율)
  - 적절하다가 79.2%

- 이 행사는 2025년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최 예정이며, 행사기간은 역대 관함식과 동일한 7일간으로 잡고 있음.

- 관함식이 야외에서 개최되는 만큼 장마철과 태풍 발생 시기를 고려할 때 6월부터 9월 사이 관함식 개최는 무리가 있으므로 5월 개최는 적절함.
- 한편 매년 6월초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세계 각국 국방장관들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안보회의인 아시아안보회의(Shangri-La Dialogue) 일정을 고려하여 해외 장성들의 「2025 국제관함식」 참여 유도에도 유리한 시점임.
- 2025년 11월 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연례적으로 10월에는 ASEAN의장국에서 ASEAN+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VIP가 참석한 점을 고려하여 역대 개최 일정인 10월 달이 아니라 5월 달로 옮겨 개최함으로써 VIP의 참석 가능성을 높임
- KIEP 설문조사('24. 8.)에서도 2025년에 '국제관함식'을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시기 또는 다른 지역에서라도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이 68.2%로 높은 비중을 차지

#### 〈관련 설문조사 결과〉

· 본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을 때, 2025년이 아닌 다른 해(시기) 또는 다른 지역에서 개최(긍정 답변 비율) : 68.2%  
 - 다른 시기에 부산에서 개최 (30.8%), 2025년에 다른 지역에서 개최 (21.3%), 다른 시기에 타 지역에서 개최(16.1%)

- 「2025 국제관함식」 개최는 대한민국의 발전된 국방 역량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고, 해군 창설 80주년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경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사 개최가 적절하다고 전국민 대상 설문 응답한 비중(복수 응답)이 각각 75.9%, 48.9%였음.
- 한편 국제관함식은 해군이 주도하는 군 행사로 국내에 유사국제행사가 존재하지 않고, 광복이나 국군 창설, 또는 해군창설 기념 등 특별한 계기에 개최되는 행사임.

### 〈관련 설문조사 결과〉

- 국제관함식을 2025년에 개최하는 하는 것에 대해 56.9%가 적절하다고 응답

#### ③ 내·외국인 유치 현실성

- 주관기관은 약 70개국에서 총 80,000명(외국인 1만 명, 내국인 7만 명)유치를 목표로 하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 해군 네트워크 활용과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과거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관함식 결과 보다 관람객 유치목표는 다소 높아 방문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내외국인 유치방안은 기초적 방향과 일반적 방법 제시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행사 특성상 유치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④ 목적 달성을 위한 행사 홍보 계획의 적절성

- 홍보 전략과 기본방향, 실현 수단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양호하나 부정적 여론 관리 및 오·왜곡 보도 대응 계획의 구체성은 부족하며 행사에 대한 현재 인지도와 개최 시기를 고려할 때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각 홍보 수단별 실행 시기를 설정하고 SNS, 지면 광고, 여러 매체를 활용한 영상광고, 기자 간담회 등 다양한 수단의 홍보 방안을 제시함.
- 설문 결과 2025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인지도가 대체로 낮고 전국민의 인지도보다 지역주민의 인지도가 오히려 낮는데,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주민 협조를 위해 홍보의 필요성 강조**

### 〈관련 설문조사 결과〉

- ‘2025 국제관함식’ 개최 추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국민 1,000명 중 29.2%, 부산시민 300명 중 11.0%가 ‘(추진 사실을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

⑤ 과거 주관기관 유사행사 경험 반영

- 과거 개최된 국내 관함식의 개최 결과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2025 국제관함식 계획에 반영함.
- 개최지 선정, 초청 예정 국가 선정, 예산 편성, 행사 프로그램 구성 등에 **과거 개최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⑥ 시설물 활용 계획 합리성

- 본 국제행사는 해군 부산작전기지와 인근 해안 및 부두, 정박 함선을 활용해 행사가 진행되며 그 외 호텔 및 전시시설(벙스코) 등을 임차해 진행할 계획임.
-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시설물·설치물, 기기·장비가 계획되어있지 않아 **별도의 잔존 시설에 대한 계획이 불필요함.**

다.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

① 연계성 및 접근성

- 부산은 인구 기준 한국의 2대 도시이자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도시로 KTX부산역, 김해국제공항 등을 통한 **접근성이 뛰어남.**
- 해군본부에서 주 행사장인 부산작전기지와 주요 지점(벙스코, 해운대 숙박시설 등)간 수송차량 배차를 계획하고 있어 **참가자 이동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 다만 국제관함식에 방문 의향이 없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 '이동거리가 멀어서'가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 관계로 부산 및 인근 지역을 타깃으로 한 홍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관련 설문조사 결과〉

· KIEP가 개최한 전국민 대상 설문조사('24.5.31~'24.6.17)에 따르면 「2025 국제관함식」에 방문 의향이 없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 '이동거리가 멀어서'라는 응답이 51.2%로 가장 많았음.

#### ② 과거 유사행사 성과 및 인프라 확보

- 해군본부는 과거 세 차례(1998년, 2008년, 2015년) 국제관함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과 발전상을 보여줌.
- 부산작전기지는 함정, 항공기의 집결과 외국함정 정박이 용이하며 수용능력 초과시 인근 진해기지로 분산 수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
-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 과시 및 방산수출 확대 기회로 주목받는 국제해양방위 산업전(MADDEX)은 부산 BEXCO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이미 사용협조가 완료된 상황임.
  - MADDEX는 2001년 최초로 개최된 이래 부산 BEXCO에서 격년제로 개최

#### ③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의

- 국제관함식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로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면밀히 협의를 진행 중임.
- 관함식 행사지원 관련해 개최지인 부산시와 지원 총괄 부서를 지정하는 등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함식 지원 관련해 부산시 총괄부서인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책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각 업무별 담당 부서는 2024년 9~10월경 지정될 예정
- 주요 행사인 MADDEX는 해군, 부산광역시, 한국무역협회, 해군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해군본부는 2024년 4월부터 해군협회와 협의를 개시했으며, 부산관광공사와도 협의를 진행 중임.

#### 4 지역주민/기업과의 협의

- 국제관함식은 군에서 주최하는 특수한 행사인 관계로 지역주민과의 협의, 설명회 등은 따로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민간기업 참여 관련해서는 국방부를 통해 홍보업체 컨설팅을 받아 초청 대상 기업을 검토 중이며, 과거 개최 경험을 토대로 참가 기업을 식별 중임.
- KIEP가 개최한 전국민 대상 설문조사('24.5.31~'24.6.17) 결과, 「2025 국제관함식」 개최 목적 달성정도에서 MADEX의 효과성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으로 볼 때 **방산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관련 설문조사 결과>

- 「2025 국제관함식」 개최 목적별 달성 정도(5점 만점)
  - MADEX 3.75점, 국제교류 협력 행사 3.72점, 함정공개 행사 3.69점, 국제해양력심포지움 3.63점, 해상사열 3.59점, 불꽃축제·호국음악회 등 3.47점

#### 5 지역주민의 지지

- KIEP가 실시한 부산시민 대상 설문조사('24.5.28~'24.6.20) 결과, 「2025 국제관함식」의 부산 개최에 대한 지지도는 68%로 높음.
- 위 설문 결과에 따르면 「2025 국제관함식」 개최시 방문 의향에 대해서는 ‘가고 싶다’는 의견이 53%로, 절반 이상이 방문 의향을 나타냄.
  - ‘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은 32.7%로 나타냈는데 그 이유(복수 응답)는 ‘평소 해군, 함정, 군사무기 등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65.3%),’ ‘행사 프로그램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62.2%)’ 등 순으로 나타나 알찬 프로그램 구성 및 홍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설문조사 결과>

- 부산시민의 「2025 국제관함식」의 개최 지지도
  - 지지한다(매우 지지한다+지지한다): 68%
  - 지지하지 않는다(지지하지 않는다+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9.3%

## 라.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

### ① 국고지원 불가피성 사유

- 「2025 국제관함식」은 대한민국 해군이 개최하는 행사로서 정부의 인태전략 실현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혁신 4.0’의 성과를 국민에게 홍보하는 자리가 될 것인바, 행사 개최를 위한 국고지원 요구 사유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
  - AHP평가위원은 「2025 국제관함식」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행사개최 목적에 대한 국익·공익에 대한 기여도\*와 국고지원의 불가피성\*\*을 꼽았고, 그 항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
    - \* AHP평가 2계층의 '행사개최 목적에 대한 국익·공익 기여도'가 AHP 평가 1계층의 행사 공익성의 약 50%를 설명
    - \*\*AHP평가 2계층의 '국고지원이 불가피한 사유의 적절성'이 AHP 평가 1계층의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의 약 73%를 설명
- KIEP가 실시한 전국민 설문조사('24. 8.)에서도 응답자의 72.0%가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국고지원을 줄이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8.0%에 머뭇.

### ② 국고지원 수준 적절성

- 올해 KIEP가 수행한 원가검토 결과 총사업비의 99.17%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적으로 예산을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되었다기보다는 적절하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항목별로는 과소 및 과대 추정이 다르게 나타나 전제적인 항목별 예산 조정이 필요함.
    - \* 과소 추정된 부분은 외국대표 및 수행원 항공료 지원과 환영/환송 만찬 및 함상 리셉션이고, 과대 추정된 부분은 환영·환송행사, 기념품, 음향장비, 외국대표 및 수행원 숙박비, 좌/시승함 나레이터 용역, 전체 행사준비 물품 및 기념품 구입 등으로 파악됨.
- 과거 유사규모의 행사 예산과 비교할 때, 행사 참여 인원수와 행사기간을 고려하면 「2025 국제관함식」의 예산 규모 50.47억 원은 적절해 보임.

-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5일, 5천명, 약 83억 원), 2022년 세계 지방정부연합세계총회(5일, 5천명, 70억 원)

### 3. 사업비 분석

- 총 5,047,000,000원 중 38,615,694원 과소 계상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총사업비의 원가검토 금액과의 차이는 미미한 수준임(검토율 100.77%).
  - I. 일반수용비, V. 대행용역, IX. 관서업무비의 경우 원가검토금액 대비 사업 계획금액의 과다계상은 미미한 수준 (검토율 90%대)이며 IV. 임차료 (106.54%), VII. 국내 여비 (검토율 104.43%)는 미미한 수준의 과소계상으로 평가됨.
  - II. 공공요금, III. 급식비, VI. 재료비의 경우 검토율 90% 미만으로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VIII. 국외 여비는 검토율 158.56%로 상당한 수준으로 과소 책정됨.

요약 표 3. 사업비 적정성 분석 결과

(단위: 원, %)

항목	계획금액(A)	검토금액(B)	증감(B-A)	검토율(B/A)
I. 일반수용비	905,000,000	849,155,492	- 55,844,508	93.83%
II. 공공요금	9,000,000	8,010,000	- 990,000	89.00%
III. 급식비	39,000,000	35,000,000	- 4,000,000	89.74%
IV. 임차료	457,000,000	486,900,000	29,900,000	106.54%
V. 대행용역	2,068,000,000	1,898,675,187	-169,324,813	91.81%
VI. 재료비	120,000,000	105,000,000	- 15,000,000	87.50%
VII. 국내여비	243,000,000	253,760,000	10,760,000	104.43%
VIII. 국외여비	450,000,000	713,508,000	263,508,000	158.56%
IX. 관서업무비	756,000,000	735,607,015	- 20,392,985	97.30%
<b>T. 총사업비</b>	<b>5,047,000,000</b>	<b>5,085,615,694</b>	<b>38,615,694</b>	<b>100.77%</b>

자료: 원가전문업체



## V. 종합평가 및 결론

### 1. 종합평점 도출

□ 본 행사의 정책성은 우수한 수준이며 행사개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있는 것으로 평가

-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토대로 전문가 8인에 의한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5 국제관함식」의 정책성에 대한 종합평점은 84.73점(100점 만점)으로 도출

○ 「2025 국제관함식」은 행사의 공익성과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 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에,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 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 개최지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전개가 개최 전까지 요구됨.

요약 표 4. AHP 평가자 8인의 평가 결과

평가기준	배점	100점 전환 종합평점	최종평점
행사개최의 공익성	30	87.39	84.73
행사계획의 우수성	30	83.20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	20	81.18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	20	86.56	

### 2. 결론 및 정책 제언

□ 다만, 본 행사의 성과 제고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제안

- 「2025 국제관함식」을 2025년에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지만, 현재 부산 시민과 소통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급히 이를 개선할 필요

○ 2018년 제주 관함식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개최지 시민과의 소통을 통

해 관함식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의 방산물자 수출에 기여함을 홍보할 필요

- 부산시 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관함식 참석 외국 승무원에 대한 부산 시내 쇼핑 동선 홍보 및 관광 유인책을 마련하고, 백화점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할인행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향후에도 부산에서 국제관함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방부(해군)-부산시-정부’간 협의체 형성을 통해 꾸준한 소통 속에서 ‘국제관함식’하면 부산이 연상되도록 노력할 필요
- 군 행사인 만큼 의전과 경호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VIP 동선 확인 및 일반인들의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국민시승함과 좌승함 행사는 해양에서 진행되는 만큼 안전과 보안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행사요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이 필요함.
  - 안내인력 차출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AI 앱을 활용하면 언어장벽을 낮출 수 있으므로 언어보다는 적극적으로 대면접촉을 선호하는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
  - 또한 60개국에서 1만 명 이상이 참석할 뿐 아니라 참모총장 및 대표 장성 일행이 입국할 예정이므로 입출국 관리 및 안내를 위한 사전 준비 계획 마련 및 사전 훈련이 필요
-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25 국제관함식」 개최 시기인 5월 하순에 한여름과 같은 고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으므로 관련 대비를 할 필요
- 2022년 5월 하순 전국 평균 기온이 30℃를 넘어서면 고온 현상 발생했음.<sup>3)</sup>
  - 2023년의 경우 5월 하순에 따뜻한 이동성고기압과 찬 대륙 고기압 사이에서 호우가 발생했으므로, 개최 시기에 함정에서의 호우 관련 대응 체계 마련 필요

---

3) 기상청, 기후분석정보 2022년 5월호, 2022.6.8

- 한일 간 자위함기 계양과 관련된 이슈가 쟁점화 되지 않도록 외교부와 국방부의 담당자가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
  - 1998년과 2008년에도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달고 관함식에 참여했지만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은 양국이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관리한다면 이슈화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함.
  - 다만 광복 8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이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광복 8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2025 국제관함식」에 참석한다면 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자위함기(육일기)가 이슈가 될 경우 이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프랑스와 베트남의 사례〉

- 2024년 5월 7일 프랑스는 베트남의 디엔비엔푸 전투 승전 행사에 처음 참여
  - 디엔비엔푸 전투(1954년 3월 13일~5월 7일)는 베트남이 자국을 식민 지배한 프랑스를 궤멸한 전투
  - 베트남 승전 70주년을 맞아 프랑스 국방부 장관과 보훈부 장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기념식에 참석
  - 베트남이 한때의 침략국이자 패전국인 프랑스 정부 대표단을 기념식에 초청했고 프랑스가 이를 받아들여서 성사됨
  - 베트남은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교역과 안보 분야에서 실리는 행기는 전략을 추진 중임.

- 「2025 국제관함식」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의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전통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많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함.
  - 초청 국가에 유럽 함정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